

## 문화엑스포 제8대 사무총장에 류희림

문화엑스포 제8대 사무총장에 류희림(59·사진) 씨가 4월 1일자로 임명된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임 류희림 사무총장은 경북대를 졸업하고 KBS 기자를 거쳐 YTN 경영기획실장과 YTN플러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문화엑스포는 지난 2월 사무총장 채용공고로 응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류 씨를 사무총장에 최종 낙점했다.

류희림 사무총장은 “엑스포개최 전



락을 재정립하고 전 시공간 재배치와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고품격 테마파크를 조성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엑스포로 거듭나고 지역경제와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서 기자



유한김벌리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

유한김벌리가 올해에도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1985년부터 35년째로 지금까지 총 2만명이 넘는 신혼부부들이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힘을 보탰다. 사진은 지난 30일 경기 화성에서 진행된 '2019년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나무 묘목을 나르고 있다.

/유한김벌리



신세계백화점, 사원 보호 캠페인

신세계백화점이 현장 직원을 지키기 위한 고객 선언문을 다시 한 번 내건다.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협력사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원 보호 캠페인을 다시 시행한다.

/신세계백화점



포스코건설, 대학생 봉사단 발대

포스코건설은 지난 29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대학생봉사단인 '해피빌더(Happybuilder)' 9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김학용 경영지원본부장(앞줄 왼쪽 일곱번째)과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지난 29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해피빌더' 9기 발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 인사

- ◆메트로신문 △ 정책사회부 법조팀장 장용진 차장
-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 여성고용정책과장 이현옥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박은규
-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인사 △ 기술유용감시팀장 이하나 △ 가맹거래조사팀장 신용희 △ 대통령비서실 파견 이득규
- ◆원자력안전위원회 △ 과장급 전보 △ 안전기준과장 손승연
- ◆일동제약그룹 △ 일동홀딩스 △ 최규환 전무이사(경영지원본부장) △ 강규성 전무

이사(재경본부장) △ 일동제약 △ 김승수 전무이사(ETC부문장) △ 이도연 상무이사(품질경영실장)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 이장휘 전무이사(대표이사)

◆현대해상 △ 임원급 전보 △ 방카제휴영업본부장 김성화 △ AM본부장 이경식 △ 전략채널마케팅본부장 류재환

### 부음

▲임종심씨 별세, 위수환(장흥종합병원 서무차장)·영미(KBS 광주총국 아나운서씨)모친상, 정우천(문화일보 전국부 광주주재 부장)씨 장모상 = 30일 오후 9시 10분, 장흥종합병원 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9시. (061-863-6444)



김민소장의

당탕평평

며칠 전 필자는 전남의 구례교육지원청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굿모닝병원이라는 종합병원에 소통과 리더십 관련 강연을 다녀왔다. 사실상 리더십과 소통은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다. 불통인 리더십도 없고, 원활한 소통을 하며 리더십이 생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구례교육지원청에서의 이틀에 걸친 학부모 교육의 경우 아이들과 가정과 학교의 소통에 관한 이해와 방법을 제시했다. 대부분 학교와 아이들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소통의 부재 혹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생활과 학업문제, 청소년 문제 등 일련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소통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이나 부모들은 그런 소통의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막연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갈수록 서로 간에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특정 과목에 대한 것들은 많이 배웠으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소통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도 배우거나 경험한 적이 특별히 없기 때문이다. 신체에서 혈액순환만 잘 되어도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사람 관계에서는 소통만 제대로 되어도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결국 소통의 부재와 각자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정과

## 리더십&소통

학교와 사회에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분쟁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소통과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마음에 울림과 감동은 없으면서 단지 사전적인 의미를 아는 정도로는 참지식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혜는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타까운 부분이다. 4차산업혁명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울림과 실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현실성 없는 지식은 AI와의 경쟁에서 인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전남의 구례군은 전남에서도 가장 작은 지역이다. 그런데도 이틀간 소통에 관련한 강연을 기획하고 실행한 점에 대해서 필자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런 교육이 복잡 난해한 아이들 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소통이 부재인 상황에서 다른 것을 논한다는 것은 가감승제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수학을 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1%도 설득력과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교육당국과 선생님들도 소통과 리더십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아이들에게 그것을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교육지원청의 강연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무언가 적잖은 울림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그분들이 직접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

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시니 큰 보람을 느낀다. 이미 세상의 지식이 무분별하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중고생과 대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보다는 유아나 초등학교 아이들과 그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소통교육과 리더십을 받아들이기에 훨씬 수월한 것이 사실이다.

종합병원에서의 강연도 마찬가지다. 사실 대학의 교수들과 의사 등 소위 엘리트 계층들이 남의 생각과 이론과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누구나 어느 정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의 유연한 소통과 불통으로 인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자를 초대하고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사실에 대해 필자를 그런 강연에 초청한 표면적인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그 겸손함과 진지함과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 무언가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와 마인드에 진심으로 경외감을 표한다.

잘되는 조직과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본자세가 있다. 첫째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뿌리치고 새로운 정보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지식과 이론 외에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다. 소통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세련된 소통에서 구체적인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다. 앞으로도 필자와 인연이 될 전국 의 불특정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생각이 전환되고 삶이 변화됨으로써 모든 것이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데일리풀리 정치연구소장

## CU, 미세먼지 저감 앞장... 숲 만들기 진행

노을공원에 나무 150그루 심어  
임직원·가족 봉사단 40명 참여

BGF는 지난 30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봉사단을 꾸려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BGF 좋은 친구들의 숲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BGF 임직원 및 가족 총 40여 명과 노을공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참여해 갈참나무, 백담나무, 개암나무 등 150여 그루의 묘목을 심었다.

도시숲 조성 사업은 최근 미세먼지의 완화 정책 중 하나로 그 효용성이 날로 커지며 각계각층의 참여가 필요한 범국가적인 추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향후 4년간 총 4800억 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확



BGF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30일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BGF 좋은 친구들의 숲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GF리태일

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BGF는 수년 전부터 미세먼지 예방 및 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BGF는 지난 2012년부터 편의점 CU에서 카드 결제 시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종이영수증을 출력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IBK기업銀, 음향기업 크레신에 100억 투자

IBK기업은행이 'IBK-BNW 기술금융 2018 펀드'의 3번째 투자기업으로 크레신을 선정하고 투자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크레신은 음향·청취기기 혁신 기술

보유 기업으로 60년간 이어폰·헤드폰 제조하고 있다. 이번 투자금은 베트남 공장 생산라인 증설과 신제품 개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투자금은 100억원이며,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RCP

S) 인수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디어 소비의 대중화와 블루투스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이어폰·헤드폰 시장이 2배의 성장을 진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수준의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